

박선후 Sunho Park

질문 1. 박선호 작가님은 사적 기억-정보-시각 이미지로 구성된 꾸러미를 만들어 내는 일에 호기심을 가집니다. 구술 기록을 기반으로 미시사와 거시사, 개인사와 사회사를 엮고 당대의 사회, 경제, 정치사를 개인의 삶과 연결하여 미술 작품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각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부터 신체와 사물의 연결 지점에 관해 탐색하고자 합니다.

각 개인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술의 형식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박선호: 구술은 말하는 사람의 기억이나 상황에 의존해서 구성되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셀 수 있는 자료나 정보와 달리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떠올리며 느낀 강한 감정이 작업의 동력이 될 때가 많고 구술을 활용해 통해 제가 느낀 것을 공유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기에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질문 2. 작가님은 주로 어디에서 사물을 수집하나요? 작업마다
다양하겠지만 사물을 선택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박선호: 물리적이고 형태가 있는 사물은 잘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여행지에서 발견한 돌멩이, 주그릇은 편지 등 사소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모아두곤 했는데 정리정돈을 못하는 편이라 적게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주로 이상하거나 매력적인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기억이나 이야기처럼 형태가 없는 것을 기록해 모아 둡니다. 일단 모은 후에 분류하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말이나 다양한 맥락이 담긴 이야기, 누군가가 살아가며 느낀 강한 깨달음, 과거부터 현재까지 되풀이되며 출몰하는 이야기와 단서들을 수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거의 매 작품에서 사물을 활용해 왔는데요. 사물이 작업의 출발점이었다기보다 작품의 내용이나 이야기와 시대적, 조형적, 기법이나 효과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것을 선택한 것에 가깝습니다.

질문 3. 〈해석의 마음(Tracing Heart)〉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여러 사람에게 어머니가 그린 드로잉을 조각내서 보여줍니다. 한 사람에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미를 담은 그림은 조각난 뒤 다른 사람의 기억과 연결되어 새로운 이야기 조각을 불러옵니다. 다양한 유리 조각들을 계속해서 맞추다가 어긋나기도, 휘적으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론 〈해석의 마음〉 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손이 나오는 지점이 집중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리조각과 손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선호: 〈해석의 마음〉은 어머니가 그린 한 점의 드로잉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미술치료사 전지연 선생님과 제가 나누는 대화, 어머니의 그림, 유리 조각, 글, 배경 음악 등이 함께 흐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영상에 등장한 그림은 어머니의 삶이 담긴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미가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딸인 저는 이 그림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으나 어머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그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 속에 분명히 읽어낼 수 있는 몇몇 요소가 있지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체를 종합해 읽어내기 어려운 단절 혹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임상심리상담가를 찾아가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때 그리는 집이나 나무를 그린 정형화된 그림이 아니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다가 어렵사리 한 분(전지연)과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작업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 원본 그림의 의미를 알아내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고, 이 그림을 시작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엮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이 그림을 다섯 사람에게 보여주며 ‘어떤 의도로 그린 것이다’ 라고 자신을 투영해 읽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참여자들이 원본의 그림의 의미와 다르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읽어 주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좌면에 등장하는 손은 작은 유리 조각들을 맞춰보거나 배열하는데, 이 유리는 영상과 함께 제작하고 있던 스테인드글라스 〈루트드로잉〉을 제작하고 남은 자투리 유리였습니다.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동시에 작업에서 쓰임 없는 것에 새로운 쓰임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른 색깔과 질감의 유리에서 나온 조각이라 한 조각을 다른 조각에 맞춰보려 해도 길어도 폭도 달라 꼭 맞지 않고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림에도 제스처를 보여주는게 작업에서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4. 질문 3과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유리 조각을 휘젓는 장면에서 손 글씨로 쓴 텍스트 내용이 레이어를 이루며 나옵니다. 텍스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두 장면의 중첩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박선호: 조각난 그림을 읽어준 다섯 사람의 글입니다. 두 가지 다른 이미지를 겹쳐 다른 층위와 맥락을 가진 장면과 자료를 연결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해석의 마음의 영재에 쓰인 'tracing'이라는 단어는 베껴 그리다, 투영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복잡한 작용을 떠올리며 이 단어를 포함해 제목을 지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에 달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영상을 편집하며 누군가와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연히 포개질 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중첩의 기법이 이러한 생각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AB 사이드>에선 기혼여성의 노동 현실에 대해 개인적인
구술과 함께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회사의 광고문구는 여성 노동
현실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씁쓸함을 안겨줍니다. 80년대 여성의
노동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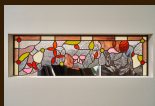
박선희: 1980년대는 1961년생인 제 어머니가 20대 시절을 보내던 시기입니다. 〈AB 사이드〉를 제작하던 2021년에 저는 2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요. 이 시기에 이전에는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 1980년대 일하고 사랑하며 살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질문 6. 활동하시는 연구공동체 마코(Maco)에서 작성하신 쪽글 중 ‘(K&V) 상처 내기와 상처 입기: 두 가지 맺음의 방식’을 보면 관계 맺음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작가님의 작업에서 각 사물의 자율성과 상호성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선호: 이 글은 산티아고 시에라(Santiago Sierra)의 작품 250 cm Line Tattooed on 6 Paid People(1999)과 장 미셸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의 Le Collier-Cicatrice(1997)를 비교하고 각 작품이 다루는 상처의 의미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살펴봅니다. 시에라의 작업은 계약을 통해 참여자의 몸에 상처를 내는 방식-몸에 문신을 새기는 일-으로 진행되고, 오토니엘의 작업은 자율적인 참여-참여자-작가가 만든 빨간색 유리 목걸이를 착용-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에라의 작업에 비해 오토니엘의 작업은 기꺼이 상처 입기를 선택하고 언제든지 그 목걸이를 벗을 수 있는 자율성을 담보하고, 또한 참여자와 관객 사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는 상호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동안 제가 만든 작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당시 글을 쓰며 자율성과 상호성이 담보된 작품을 제작하기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질문 7. 현재는 어떤 작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선호: 올해는 작업을 만들지 않는 연구년으로 보내기로 결심했는데요, 최근에 Super 8 mm 카메라와 필름에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촬영하고 있습니다. 필름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번거로운 단계를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해석의 마음(Tracing Heart)〉, 2022,
싱글 채널 비디오, UHD, 컬러, 사운드, 12분 12초.

사물과 관련한 이야기:

신한갤러리에서 열린 전시 《터치스톤Touchstone》을 위해 다양한 모양, 색, 질감을 가진 유리를 얹어 스테인드글라스 〈루트드로잉〉을 만들었다. 작업을 만들 때 도움을 준 전유리 선생님께서 작품을 제작한 뒤 남은 유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물어봤다. 보통 자투리는 떼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웬지 모르게 이 조각들을 기념으로 가져오고 싶었다. 유리의 뾰족한 면을 그라인더로 다듬고 작업실로 가져와 책상에서 이것들을 며칠 동안 만져봤다. 다른 질감, 두께, 모양의 유리가 부딪치며 나는 소리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해석의 마음〉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유리 조각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불러와 쓰임이 없어진 것들에 쓰임을 부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AB 사이드(AB Side)〉, 2021—2021,
싱글 채널 비디오, UHD, 컬러, 사운드, 08분 05초.

사물과 관련한 이야기:

이 작업에서는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를 활용해 테이프의 양쪽 면에 담긴 이야기를 번갈아 들려준다. 한 면은 1980년대 금성사에서 발행한 광고의 슬로건을, 다른 쪽에는 그 시대를 살던 여성의 이야기를 녹음해 재생한다.

금성사는 1985년부터 광고에서 ‘테크노피아—인간과 기술의 만남’이라는 슬로건을 활용했다. ‘테크노피아’(technopia)라는 단어는 기술(technology)과 이상향(utopia)의 합성어로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 세상은 앞으로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메시지를 담는다. 그러나 내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그 당대 여성들의 삶은 이러한 광고가 전달하려는 모습과 사뭇 달랐다.

작업에서 내가 확인한 시대의 단면을 함께 들려주고 싶었고 이를 위한 특별한 기록·재생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동묘의 전파상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를 살펴봤고 우연히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를 발견했다. 일반적인 워크맨보다 크기가 더 작아 양손에 꼭 들어오는 크기였고 조작이 쉬웠다. 이 레코더에는 테이프의 재생 면을 바꾸는 ‘reverse’ 기능이 있어 한 면과 다른 면을 오가며 재생할 수 있었고, 시대의 여러 면을 들려주기에 알맞은 장치라고 느꼈다.